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와 정책방안

Domestic Violence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Tasks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가정내 장애인의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비장애인의 가정폭력과는 다르다. 즉, 여성장애인이 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여성과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해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고, 주활동 공간이 되고 있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애인의 가정폭력은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의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장애인의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8.5%였고,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은 언어폭력(6.5%), 경제폭력(3.3%), 정신폭력(1.4%), 성적폭력(1.1%), 신체폭력(0.7%)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인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으로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은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방식으로 '함께 폭력을 행사 하는 경우(55.0%)'가 가장 많았다.

장애인은 가정폭력 예방정책으로 '가정폭력 예방홍보·계몽강화'가,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보호시설 확충'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방안으로는,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전문화된 장애인 보호시설(쉼터)의 설치 및 지원 확대, 장애인전문 통합상담소(성폭력·가정폭력) 설치 확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차별상황에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성차별을 부가적으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성차별과 동시에 장애차별이라는 이중 차별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이중 차별상황은 가정에도 내재되어 있다. 가정내 장애인의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비장애인의 가정폭력과는 다르다. 즉, 여성장애인이 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런 경우 여성과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해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고, 주활동 공간이 되고 있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여성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애인의 가정폭력은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 실태에 근거한 장애인 가정폭력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장애인 가정폭력실태¹⁾

1) 장애인 가정폭력 발생률

(1) 최근(지난 1년간) 장애인 가정폭력 발생률

19세 이상 장애인의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8.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란 이유로 가족 내 차별·폭력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한 가정폭력

발생률 6.0%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장애인의 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은 남성장애인, 19~29세 연령대, 정신적 장애유형,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가정폭력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장애인 9.1%, 여성장애인 7.5%로 남성장애인의 가정폭력발생률이 여성장애인 보다 1.6% 포인트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19~29세 20.0%, 30~39세 18.2%, 40~49세 10.3%, 50~64세 8.0%, 노인층인 65세 이상 연령대가 4.9%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유형 31.3%, 내부기관장애유형 13.3%, 외부신체기능장애유형 7.3%로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 12.1%, 경증 및 중등도 장애인 각 7.6%로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 가정폭력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2) 폭력유형별 장애인의 가정폭력 발생률

장애인의 가정폭력을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신폭력, 성적폭력, 경제폭력으로 구분하여 가정폭력 유형별 장애인의 가정폭력 발생률²⁾을 알아보면, 언어폭력이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폭력 3.3%, 정신 폭력

표 1. 장애인 가정폭력 발생률 (단위: 명, %)

구분		분석 대상 수	가정폭력 발생률
전체		553	8.5
성별	남성	339	9.1
	여성	214	7.5
연령별	19~29세	15	20.0
	30~39세	55	18.2
	40~49세	78	10.3
	50~64세	199	8.0
	65세 이상	206	4.9
장애 유형별*	외부신체기능장애	492	7.3
	내부기관장애	45	13.3
	정신적 장애	16	31.3
장애 정도별**	중증	107	12.1
	중등도	210	7.6
	경증	236	7.6

주: * 외부신체기능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안면장애가, 내부기관장애에는 신장·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가 포함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정신지체),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발달장애)가 포함됨.
 ** 장애정도의 중증은 장애등급이 1~2등급, 중등도는 3~4등급, 경증은 5~6등급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2007년도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55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1.4%, 성적폭력 1.1%, 신체폭력 0.7%의 순이었다.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등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률은 폭력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언어폭력은 남성·여성장애인(6.1%), 정신적 장애(18.8%), 중증장애인(8.4%)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은 남성장애인(0.9%), 외부신체 기능장애(0.8%), 경증장애인(1.3%)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정신폭력은 남성장애인(1.5%), 정신적 장애(6.3%), 중등도 장애인(2.4%)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성적폭력은 여성장애인(1.4%), 외부신체 기능장애(1.2%), 경증장애인(1.3%)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그

리고 경제폭력의 경우는 남성장애인(4.1%), 정신적 장애(18.8%), 중증장애인(3.7%)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이 성적 폭력 위협에 더 많이 처해 있고, 정신적 장애유형과 중증장애인이 모든 가정폭력 유형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 가정폭력 발생원인

장애인에게 있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장애인이기 때문'인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인지, '경제력이 없기 때문'인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인지, '사회적 차별 때문'인지에 대해 항목별로 각각 알아본 결과,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항목에서 그런 편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이다'(52.4%),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28.6%),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26.2%),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7.1%)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장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가정폭력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장애인이기 때문'과 '의사소통 안 되기 때문'이라는 항목에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해당된다.

3) 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장애인 가정 폭력의 가해자는 배우자가 56.1%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17.1%), 어머니(9.8%), 자녀(7.3%), 친인척·기타(4.9%) 순이었다.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은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자녀에 의한 가정폭력도 여성장애인에게서만 발생하였다.

4) 장애인 가정폭력 대처방식

장애인은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방식으로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55.0%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음'·'기

표 2. 가정폭력유형별(언어/신체/정신/성적/경제폭력) 장애인의 가정폭력발생률

(단위: 명, %)

구분		분석 대상 수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신폭력	성폭력	경제폭력
전체		553	6.5	0.7	1.4	1.1	3.3
성별	남성	339	6.1	0.9	1.5	0.9	4.1
	여성	214	6.1	0.5	1.4	1.4	1.9
장애유형별	외부신체기능장애	492	5.7	0.8	1.2	1.2	2.4
	내부기관장애	45	11.1	-	2.2	-	6.7
	정신적 장애	16	18.8	-	6.3	-	18.8
장애정도별	중증	107	8.4	-	-	0.9	3.7
	중등도	210	6.2	0.5	2.4	1.0	2.9
	경증	236	5.9	1.3	1.3	1.3	3.4

주: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가정폭력유형의 구분에 있어, 언어폭력은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는 행위', '장애를 거론하며 비난하는 행위'가, 신체폭력은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 '가두거나 감금시키는 행위'가, 정신적 폭력은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행위',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위', '집에 손님이 오면 혼자 있게 하는 행위', '시설 입소하기를 은근히 강요하는 행위', '나와 관련된 일을 가족들이 대신 결정하는 행위(결혼, 임신, 양육 등)'가, 성폭력은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행위', '불임수술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시키는 행위',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는 행위'가, 그리고 경제폭력은 '수입을 빼앗는 행위', '복지혜택을 다른 가족들이 사용하는 행위', '돈벌어오라고 하거나 돈을 못 번다고 비난하는 행위'의 조사항목이 포함됨.

표 3. 장애인의 가정폭력 발생원인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장애인이기 때문	19.0	14.3	14.3	42.9	9.5	100.0(42)
교육을 못받았기 때문	35.7	47.6	9.5	4.8	2.4	100.0(42)
경제력이 없기 때문	23.8	11.9	9.5	38.1	16.7	100.0(42)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	26.2	33.3	11.9	21.4	7.1	100.0(42)
사회적 차별때문	28.6	31.0	14.3	19.0	7.1	100.0(42)

주: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 장애인의 가정폭력 가해자

(단위: %,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인척	시부모	기타	계(수)
전체	-	9.8	56.1	17.1	7.3	4.9	-	4.9	100.0(41)
남성	-	11.1	55.6	18.5	-	7.4	-	7.4	100.0(27)
여성	-	7.1	57.1	14.3	21.4	-	-	-	100.0(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타' 각 15.0%, '무조건 피함' 10.0%였다.

가정폭력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방식으로 볼 수 있는 '함께 폭력 행사'의 경우 여성장애인, 외부신체기능장애인의 경우 더 많았고, '맞으면서 참는다'는 소극적 대처방식도 여성장애인이 더 많았다. 반면 남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장애인이 행하지 않은 '대응하지 않음'이 30.0%로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외부신체기능장애유형은 '함께 폭력 행사'(58.8%)가, 내부기관장애유형은 '무조건 피하거나 맞으면서 참음'(66.6%)이 가장 많아, 내부기관장애유형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좀더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하였다.

5) 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 욕구

장애인은 가정폭력의 해결·예방을 위해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참여의향이 '없다'는 경우가 57.3%로 더 많았으며, 특히, 남성장애인, 외부신체기능장애·내부기관장애유형 장애인의 참여의향이 더 없었다.

장애인 가정폭력 시 보호시설에 입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경우가 51.8%로 더 많았는데, 특히, 여성장애인(60.4%), 정신적 장애유형 장애인(58.3%)의 보호시설 입소의향이 더 많았다.

장애인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가정폭력 예방홍보·계몽강화'(26.8%)를 가장 필요시 하였고, 그 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19.5%),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 제공'(14.8%)을 필요로 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23.7%로 남성장애인(17.1%), 전체 평균(19.5%) 보다 더 많아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보호시설 확충'이 2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담서비스 제공'(16.4%),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 조치'(13.6%)의 순이었고, 그 외 장애와 직접적 관련있는 '가정폭력법에 장애조항 강화'와 '장애인전문상담소·쉼터설치'는 4.7%였다. 남성장애인은 '상담서비스 제공'(18.0%), 여성장애인은 '보호시설 확충'(26.9%)

표 5. 장애인의 가정폭력 대처방식

(단위: %, 명)

구분	함께 폭력행사	무조건 피함	주위에 도움요청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음	대응하지 않음	기타	계(수)
전체	55.0	10.0	-	15.0	15.0	5.0	100.0(20)
성별	남성	50.0	10.0	-	10.0	30.0	100.0(10)
	여성	60.0	10.0	-	20.0	-	100.0(10)
장애 유형별	외부신체기능장애	58.8	5.9	-	11.8	17.6	100.0(17)
	내부기관장애	33.3	33.3	-	33.3	-	100.0(3)
	정신적 장애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 장애인의 가정폭력해결·예방프로그램 참여 및 보호시설 입소 의향

(단위: %, 명)

구분	해결·예방프로그램 참여의향			보호시설 입소의향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42.7	57.3	100.0(457)	51.8	48.2	100.0(446)	
성별	남성	42.1	57.9	100.0(285)	46.8	53.2	100.0(282)
	여성	43.6	56.4	100.0(172)	60.4	39.6	100.0(164)
장애 유형별	외부신체기능장애	42.1	57.9	100.0(404)	51.3	48.8	100.0(400)
	내부기관장애	44.7	55.3	100.0(38)	55.9	44.1	100.0(34)
	정신적 장애	53.3	46.7	100.0(15)	58.3	41.7	100.0(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7. 장애인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남 성	여 성	전 체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 제공	14.6	15.3	14.8
가정폭력 예방홍보·계몽강화	28.0	24.7	26.8
폭력허용적 사회문화개선	3.4	4.2	3.7
가족관계유지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14.3	12.1	13.5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17.1	23.7	19.5
상담서비스	8.4	8.9	8.6
사회적 인식 개선	9.9	5.8	8.4
기타	4.3	5.3	4.7
계(수)	100.0(322)	100.0(190)	100.0(5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여성장애인은 '주거시설 마련'(16.4%)을 많이 필요로 하였다.

3. 정책과제

첫째,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전 국민 대상의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및 홍보물 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대상이 되는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가족,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의 시설종사자, 그리고 경찰 등 가정폭력 관련 집행기관인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

표 8.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회적응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구분	전체	구분	전체
보호시설 확충	21.1	교육서비스 제공	0.9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 조치	13.6	자조모임 지원	1.9
상담서비스 제공	16.4	대안학교 제공	0.2
사회적 인식개선	5.4	가정폭력 예방·인권교육	4.1
신체적·정신적 치료	6.9	가정폭력법에 장애조항 강화	1.9
주거시설 마련	12.9	장애인전문상담소·쉼터제공	2.8
직업훈련·직장알선	10.5	기타	1.3
계(수)		100.0(53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폭력 행위자 즉,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전문화된 장애인 보호시설(쉼터)의 설치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2007년 현재 장애인 보호시설은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전문화된 장애인 보호시설을 16개 시도 중심으로 우선적인 추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신변보호, 폭력후유증 치료, 피해자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전문 통합상담소(성폭력·가정폭력)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문 장애인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문제를 통합적으로 진단,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전문 통합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인전문통합상담소는 우선적으로 16개 시도를 중

심으로 추가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전문 통합상담소에서는 장애인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지원 등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은 15개의 장애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 장애유형은 각각 고유의 장애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도설계 및 정책 마련 시 반드시 각 장애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2007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를 보면, 장애유형의 경우 정신적 장애 유형일수록, 장애정도는 중도장애인일수록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 발생에 있어서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각 장애특성에 따라 다른 실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문제에 있어서도 각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접근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붙임**